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Factors and Infants' Temperament

Park, Jaehak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Jo, Jae-Sook¹⁾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Lee, Dokhyu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bility, activity and emotionality of infants, which are the sub-factors of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self-esteem, social parenting, value of children, self-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which are the major factors of maternal parenting. The 3rd-year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and 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los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factors and infant temperament. Second, the self-esteem, social upbringing, and emotional value expectations of children, which are positive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infant temperament.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emperament should be regarded as a variable factor, rather than as an invariable one, in studie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research on infant studies is based on factors that can be changed without changing the temperament.

Key Words: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factor, infant, mother

1) Corresponding Author: Jo, Jae-Sook,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Gyeongsudaero 1406 Beongil 30,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03907 / E-mail: 0163555808@hanmail.net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 기질 간의 관계

박재학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재숙¹⁾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이덕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영아 기질의 하위요인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과 주 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의 주요 양육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가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에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두 독립표본 t-test,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요인들은 영아의 기질과 서로 관련성이 높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요인 중 긍정적 요인이 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는 영아의 기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아의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 등 기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요인 중 긍정적인 양육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질을 변하지 않는 요인으로 고정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정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영아 기질, 양육요인, 영아, 어머니

1) 교신저자: 조재숙, (0136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E-mail: bt7005@naver.com
논문투고: 2018. 08. 28 / 심사일자: 2018. 09. 03 / 게재확정일자: 2018. 09. 16

I. 서론

Adler(1970)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의 발달단계는 각 단계마다의 발달과업이 있고 특성이 있다. 그러하기에 인생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 특히, 발달과업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영아기는 그 이후 단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발달의 기초성을 갖는다. 이 기초성 안에는 다음 발달에 대한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아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Hockenberry et al., 2010).

영아의 기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질은 성장과정에서 다른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7). Walker, Berthelsen 그리고 Irving(2001)은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며 또한 또래집단에서 영아의 사회적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과학에서 기질은 영아의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여겨지며(이은희, 2000),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여러 반응을 만들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박연경, 황혜정, 2009). 뿐만 아니라 영아의 기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전 생애라는 점에서(이영 외, 2009) 영아기의 기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주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기질(temperament)은 영아가 나타내는 정서적 표현과 환경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를 의미한다(최선녀, 2015). 기질은 사회성(sociality),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등을 포함한다(Buss & Plomin, 1986).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특성, 활동성은 전체적인 활동량을 의미한다. 기질의 특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질은 영아가 갖는 개인적인 성질로서 성격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Bates(1989)는 기질에 대해서 생애초기에 출현하는 행동의 경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전 생애에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하고 있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7). Cloninger, Svrakic 그리고 Przybeck(1993)은 다학제적 접근으로 12년간 종단연구를 하여 심리생물학적인 인성모델을 확립하여 기질을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성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에 대해서 어떻게(how) 행동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행동의 내용(what)이나 행동의 동기(why)와는 다소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명자(1995)는 기질이 정서적 표현양식과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양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기질

이라는 것은 영아가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반응을 하게 하는 성향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질은 유전적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Albert(1961)는 기질을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본성적 특성’이며 ‘유전적인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이영 등(2009) 역시 기질을 설명하면서 ‘생득적 특성’ 이라고 함으로써 기질의 유전성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기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질이 영아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즉, 후천적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것이기에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영향을 받는 요인은 아니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 속의 인간’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질은 유전적 특성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성리학의 정주학과에 의하면 기질을 ‘본연의 성(性)에 대하여 혈기(血氣)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성질’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다음사전, 2018). Carey와 McDevitt(1978)는 영아의 기질을 설명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많은 학자들 역시 기질이 유전적인 것은 맞지만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격 특질이라고 하였다(송명자, 1995; 최선녀, 2015; 황선희, 1994; Shaffer; 2002; Strelau, 1989; Thomas & Chess, 1997). 이런 결론은 기질에 대한 연구가 영아의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아의 여러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기질을 변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Hoelter와 Harper(1995)는 영아가 최초로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임을 지적하면서 이 부모와 관계가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영아의 지적 발달 그리고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요인은 양육을 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서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영아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Becker, 1964).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 등은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소영 외, 2005; 박인혜 외, 2007; 손수민, 2012; 엄지원, 2011; 이지원, 2003).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대한 개념이다(Rosenberg, 197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지적인 자극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손화희, 1989; 이은주 2004; Emmanuelle, 2009).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하나로서 영아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영아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고 영아가 다양한 상

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또한 상호작용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Black & Logan, 1995). 자녀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유안진, 김연진, 1997). 자녀가치는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회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변화되며,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자녀가치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권용은, 2003; 신경남, 2016; 허은주, 1988) 정서적 가치는 자녀가 있어 생기는 즐거움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도구적 가치는 자녀가 있음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 대를 잇는 것, 노후의 돌봄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자녀가치는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데(Lugo-Gil & Tamis-Lemonda, 2008) 특히, 정서 특성과 사회성(김선숙, 2007; 기보경, 2000)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자녀를 합리적이고 애정적으로 지도하게 되는 것을 볼 때(Crnic & Greenberg, 1990)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게 됨으로써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 자기효능감은 영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역할을(박현정, 이경남, 2005),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은 영아의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Lerner & Galambos, 1985)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자녀 또한 불안과 우울한 성향을 갖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도현심 외, 2012; Billing & Moos, 1983). 이와 같이 어머니의 여러 양육요인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따라서 영아의 기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어머니의 양육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은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질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요인을 밝힘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여러 양육요인은 영아의 기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여러 양육요인 중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하여 2010년도에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태어난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향후 2027년까지 추적 조사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조사한 3차년도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2차년도 조사까지는 기질부분에 있어 사회성을 제외하고 설문하였는데 3차년도부터는 사회성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에 대한 연구로서 3차년도에 조사대상자들이 만2세로 영아에 속하는 마지막 시기와 맞는다. 3차년도 데이터는 총 2,150명의 자료이지만 이 중 중요 변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들 제거하고 총 1,74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889명(51.0%), 여아가 853명(49.0%)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의 연령은 최소 0세에서 최대 21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3.24세(SD=5.19)이다. 둘째 자녀의 연령은 최소 0세에서 최대 22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5.37세(SD=4.53)이다. 셋째 자녀의 연령은 최소 1세에서 최대 21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6.38세(SD=3.64)이다. 어머니의 맞벌이 여부는 ‘예’가 1,045명(59.9%), ‘아니요’가 697명(39.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이 1,057명(60.7%)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 359명(20.6%), 전문대졸 185명(10.6%), 고등학교 졸업 127명(7.3%), 기타 14명(.8%)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인권 533명(30.6%)로 제일 많았고, 부산/울산/경남권이 289명(16.6%), 서울권이 263명(15.1%), 대전/충청/강원권이 252명(14.5%), 대구/경북권이 214명(12.3%), 광주/전라권이 191명(11.0%)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최소 21세에서 최대 48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32.79세(SD=5.08)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N=1,742)

	구 분	빈도	%
영아 성별	남아	889	51.0
	여아	853	49.0
모 맞벌이 여부	예	1,045	59.9
	아니요	697	39.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27	7.3
	전문대 졸업	185	10.6
	4년제 졸업	1,057	60.7
	대학원이상 졸업	359	20.6
	기타	14	.8
거주지역	서울권	263	15.1
	경인권	533	30.6
	대전/충청/강원권	252	14.5
	대구/경북권	214	12.3
	부산/울산/경남권	289	16.6
	광주/전라권	191	11.0
	합계	1,742	100.0
영아 연령	첫째	Min : 0세, Max : 21세, Mean : 3.24세, S.D. : 5.19	
	둘째	Min : 0세, Max : 22세, Mean : 5.37세, S.D. : 4.53	
	셋째	Min : 1세, Max : 21세, Mean : 6.38세, S.D. : 3.64	
모 연령		Min : 21세, Max : 48세, Mean : 32.79세, S.D. : 5.08	

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양육요인 관련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이상균(1999) 외 여러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가치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문항간내적일치도는 Cronbach α .86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사회적 양육

사회적 양육은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Bornstein, 198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는 이형민(2005)외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였다. PSQ는 양육스타일을 묻는 척도로써 사회적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설정 양육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원척도는 각각 9문항, 5문항, 3문항으로 총 1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양육을 의미하는 문항들만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양육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양육은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하거나 불편해 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양육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88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동향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태도를 묻는 척도로써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자녀가치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등 총 3문항으로 정서적인 가치에 동기를 두고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가치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 총 4문항으로 도구적인 가치에 동기를 두고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는 모두 1~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의 Cronbach α 가 각각 .691, .722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했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Mainieri(2006)에서 발췌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역코딩 처리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82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이 1977년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및 디스트레스 요인’, 취업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타인 양육 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척도이다. 이 중 본 아동패널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부담 및 디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부분만 사용하였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점 척도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84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6)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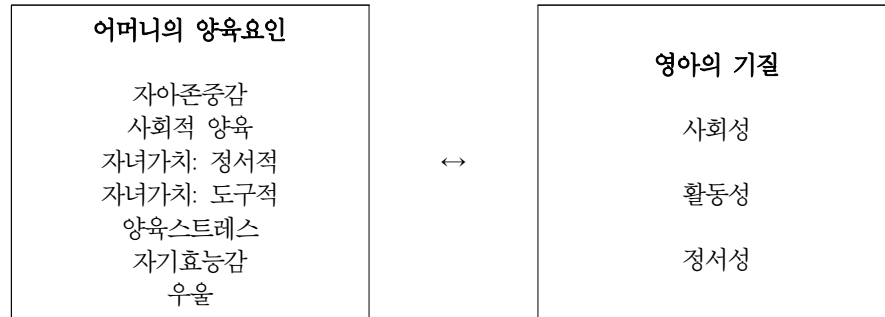
우울은 (Kessler et al., 2002)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보건면접조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간편형 측정도구이다. DSM-IV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에 사용된다.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점 척도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909로 아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나. 영아 기질 관련 측정도구

기질은 부모 평정형 EAS(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Buss & Plomin, 1986)를 사용하였다. 기질은 아동이 타고난 선천적인 속성을 측정한다. 기질척도는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사회성은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점 척도이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기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활동성은 아동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점 척도이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 기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서성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5점 척도이며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 간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하여 정서성 기질을 모두 역문항 처리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각각 사회성 .817, 활동성 .773, 정서성 .724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다.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유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질이 유전적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형성 및 변화된다는 전제하에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상관관계의 모형([그림 1])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한 후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요인을 영향요인을 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라 가설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1.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2.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3.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기대는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4. 어머니의 도구적 자녀기대는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6.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7.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 분석방법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간내적일치도를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요인의 특성, 영아의 기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요인들이 영아의 기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 양육요인을 모두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각 요인들에 대해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에 1표준편차만큼의 간격을 두어 서로 겹쳐지지 않게 하였다. 즉, 상위집단은 평균+1/2표준편차로, 하위집단은 평균-1/2표준편차로 구성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7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4.0으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요인 및 영아의 기질의 특성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요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9.80(SD=4.14)으로 나타났다. 나올 수 있는 범위가 10~40인 것을 볼 때 중간값인 25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양육은 평균 34.10(SD=4.62)으로 나타났다. 나올 수 있는 범위 9~45인 것을 볼 때 중간값인 27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자녀가치는 평균 12.87(SD=1.74)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3~15 중 중간값인 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도구적 자녀가치는 평균 11.63(SD=3.05)으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4~20 중 중간값인 1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기가 미래에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가치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는 기대가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9.28(SD=2.87)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범위 4-20 중 중간값이 12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을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보는 것이므로 자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중간보다는 낮은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30.68(SD=6.92)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범위 11~55 중 중간값인 33보다 근소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은 평균 11.83(SD=4.20)으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범위 6~30 중 중간값 18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여러 양육요인들은 긍정적인 방향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중간값 근처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어머니 양육요인의 특성

	N	Mean	SD	Min.	Max.	Range
자존감	1742	29.8037	4.14172	13.00	40.00	10-40
사회적양육	1742	34.0993	4.62057	9.00	45.00	9-45
자녀가치_정서적	1739	12.8677	1.73629	5.00	15.00	3-15
자녀가치_도구적	1739	11.6308	3.04710	4.00	20.00	4-20
자기효능감	1740	9.2839	2.86938	4.00	20.00	4-20
양육스트레스	1742	30.6780	6.92117	11.00	53.00	11-55
우울	1742	11.8341	4.20135	6.00	29.00	6-30

영아의 기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성 기질은 평균 34.86(SD=5.30)으로 나타나 나올 수 있는 범위 10~50 중 중간값인 3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성 기질은 평균 19.51(SD=2.95)로 나타난 나올 수 있는 범위 5~25 중 중간값인 1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성 기질은 평균 15.77(SD=3.06)로 나타난 나올 수 있는 범위 5~2 중 중간값인 15에 근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척도의 평균으로 비교할 경우 사회성 기질은 3.49(SD=.53), 활동성 기질은 3.90(SD=.59), 정서성 기질은 3.16(SD=.61)로 나타나 활동성 기질이 가장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영아의 기질의 특성

	N	Mean	SD	Min.	Max.	Range
기질_사회성	1742	34.8576	5.30228	11.00	49.00	10~50
기질_활동성	1742	19.5103	2.95275	7.00	25.00	5~20
기질_정서성	1742	15.7675	3.05764	5.00	24.00	5~20

2. 어머니의 양육요인에 따른 영아의 기질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요인의 정도에 따라 영아의 기질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요인을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 <표5>,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영아의 사회성 기질에 대해서 각 어머니 양육요인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치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기대를 하는 양육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t=-7.030, p<.001$), 사회적 양육($t=-6.521, p<.0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t=-4.831, p<.001$), 자기효능감($t=3.513, p<.001$), 양육스트레스($t=4.164, p<.001$), 우울($t=3.835, p<.001$) 등의 양육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각 평균을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정서적 자녀 가치기대에서는 상위집단이 영아의 사회성 기질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에서는 하위집단이 영아의 사회성 기질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긍정적 양육요인은 높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양육요인은 낮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성 기질의 집단 간 차이

집단구분		N	Mean	SD	t
자아존중감	하	452	33.6858	5.21285	-7.030***
	상	554	36.1245	5.67670	
사회적 양육	하	455	33.8396	5.26423	-6.521***
	상	422	36.3389	6.02381	
자녀가치_정서적	하	316	33.9968	5.10990	-4.831***
	상	680	35.7779	5.55087	
자녀가치_도구적	하	626	34.6789	5.41294	-1.822
	상	471	35.2675	5.13857	
자기효능감	하	376	35.7766	5.78947	3.513***
	상	541	34.4658	5.20694	
양육스트레스	하	542	35.7177	5.48225	4.164***
	상	496	34.3327	5.20724	
우울	하	525	35.6019	5.65277	3.835***
	상	529	34.2949	5.40973	

*** $p < .001$

영아의 활동성 기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와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자아존중감($t=-6.142$, $p < .001$), 사회적 양육($t=-5.448$, $p < .0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기대($t=-2.799$, $p < .01$), 자기효능감($t=4.639$, $p < .001$), 우울($t=3.069$, $p < .01$) 등의 양육요인에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할 때 긍정적 양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에서는 상위집단일수록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우울에서는 하위집단일수록 영아의 활동성 기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활동성 기질의 집단 간 차이

집단구분		N	Mean	SD	t
자아존중감	하	452	19.1438	2.99728	-6.142***
	상	554	20.3177	3.02972	
사회적 양육	하	455	19.1077	2.90591	-5.448***
	상	422	20.2180	3.12903	
자녀가치_정서적	하	316	19.4272	3.05678	-2.799**
	상	680	20.0015	2.91838	
자녀가치_도구적	하	626	19.6581	2.95319	1.473
	상	471	19.3885	3.06174	
자기효능감	하	376	20.1064	3.01363	4.639***
	상	541	19.1590	3.06121	

양육스트레스	하	542	19.7638	2.89361	1.619
	상	496	19.4738	2.87295	
우울	하	525	20.0514	3.11840	3.069**
	상	529	19.4726	3.00500	

** $p < .01$, *** $p < .001$

영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t = -10.160, p < .001$), 사회적 양육($t = -8.671, p < .0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t = -4.280, p < .001$), 자기효능감($t = 12.427, p < .001$), 양육스트레스($t = 12.427, p < .001$), 우울($t = 11.172, p < .001$) 등의 양육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평균을 비교하면 역시 긍정적인 양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에서는 상위집단에서 정서적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요인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이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에서는 모두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영아의 정서적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양육요인의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하여 부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정서성 기질의 집단 간 차이

집단구분		N	Mean	SD	t
자아존중감	하	452	14.6770	2.94850	-10.160***
	상	554	16.6552	3.21703	
사회적 양육	하	455	14.8527	2.90720	-8.671***
	상	422	16.6422	3.18360	
자녀가치_정서적	하	316	15.2278	2.97695	-4.280***
	상	680	16.1338	3.16898	
자녀가치_도구적	하	626	15.7572	3.06857	-.834
	상	471	15.9130	3.05880	
자기효능감	하	376	16.8457	3.18038	9.963***
	상	541	14.7671	3.05585	
양육스트레스	하	542	16.8579	2.97682	12.427***
	상	496	14.5585	2.97882	
우울	하	525	16.8552	2.88223	11.172***
	상	529	14.8204	3.02826	

*** $p < .001$

집단 간 차이검증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특성을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육요인은 영아의 사회성 기질, 활동성 기질, 정서성 기질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특징도 나타나 긍정적인 양육요인의 경우 일관되게 각 기질에 대해서 높은 집단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정적 양육요인의 경우 역시 일관되게 각 기질에 대해서 낮은 집단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요인이 부정적 양육요인보다는 더 명확하게 집단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의 기질의 상관성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아의 기질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의 관계를 보면 자녀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기대를 갖는 것을 제외한 모든 양육요인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자아존중감($r=.179, p<.01$), 사회적 양육($r=.188, p<.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r=.134, p<.01$)과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가 높아질수록 영아의 사회성 기질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자기효능감($r=-.070, p<.01$), 양육스트레스($r=-.123, p<.01$), 우울($r=-.097, p<.01$)과 영아의 사회성 기질과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높아질수록 영아의 사회성 기질도 역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영아의 활동성 기질과의 상관관계는 모든 어머니 양육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아존중감($r=.145, p<.01$), 사회적 양육($r=.140, p<.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r=.097, p<.01$)은 영아의 활동성 기질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가 높아질수록 영아의 활동성 기질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r=-.055, p<.05$), 자기효능감($r=-.085, p<.01$), 양육스트레스($r=-.048, p<.05$), 우울($r=-.057, p<.05$)은 영아의 활동성 기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영아의 활동성 기

질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의 상관관계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모든 양육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상관의 방향은 앞선 결과들과 동일하다. 자아존중감($r=.264, p<.01$), 사회적 양육($r=.210, p<.01$),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r=.109, p<.01$)은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가 높을수록 정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r=-.260, p<.01$), 양육스트레스($r=-.326, p<.01$), 우울($r=-.271, p<.05$)은 영아의 정서적 기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적 기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갖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를 통해서 본 결과를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모든 어머니 양육요인이 영아의 각각 기질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도 영아의 활동성 기질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의 기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의 방향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긍정적 양육요인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에서는 그것이 높아질수록 영아의 기질 하위영역들이 모두 높아지는 것을 보이고, 부정적 양육요인이라고 여겨지는 요인들에서는 그것이 높아질수록 영아의 기질 하위영역들이 모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방향성이 일관되게 관련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의 기질 간의 상관관계

	자아 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가치_ 정서적	자녀가치_ 도구적	자기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1						
사회적 양육	.439**	1					
자녀가치_정서적	.298**	.285**	1				
자녀가치_도구적	.069**	.118**	.411**	1			
자기효능감	-.469**	-.306**	-.220**	-.036	1		
양육스트레스	-.523**	-.455**	-.286**	-.176**	.451**	1	
우울	-.548**	-.311**	-.274**	-.117**	.551**	.496**	1
기질_사회성	.179**	.188**	.134**	.037	-.070**	-.123**	-.097**
기질_활동성	.145**	.140**	.097**	-.055*	-.085**	-.048*	-.057*
기질_정서성	.264**	.210**	.109**	.014	-.260**	-.326**	-.271**

* $p<.05$, ** $p<.01$

4.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영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

앞선 상관관계를 통하여 주된 연구문제인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영아의 기질이 서로 관련성이 깊은 것을 증명하였다. 이제 한걸음 더 나가 이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면 <표 8>, <표 9>와 같다. 이때 영아의 기질의 각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상관관계가 나타난 <표 7>을 보면 회귀식에 독립변인으로 투입될 요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r=-.523, p<.01$),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관관계($r=-.548, p<.01$),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상관관계($r=.551, p<.01$)가 모두 상관계수가 .5 이상으로 나타나 회귀식에서 다중공선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인들은 회귀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육요인 중 긍정적 요인들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눠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요인 중에서 우울은 여러 변인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투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또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 역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회귀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양육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의 경우에는 영아의 사회성 기질($F=30.907, p<.001$), 활동성 기질($F=17.748, p<.001$), 정서성 기질($F=50.504, p<.001$) 모두에서 회귀식이 의미가 있었다. 이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는 모두 영향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회귀식의 경우에서도 영아의 사회성 기질($F=13.592, p<.001$), 활동성 기질($F=6.468, p<.001$), 정서성 기질($F=120.881, p<.001$) 모두에서 회귀식이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긍정적 양육요인과는 달리 모든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드러나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설명력을 볼 때 긍정적 양육요인의 설명력은 각 회귀식에 대하여 5.1%, 3%, 8%로 나타나고 부정적 양육요인의 설명력은 각 회귀식에 대하여 1.5%, .7%, 12.2%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회귀식의 설명력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회귀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정적 양육요인의 경우 정서성 관련 회귀식은 의미가 있지만 사회성과 활동성 관련 회귀식은 설명력이 낮으므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8> 영아의 기질에 영향 미치는 긍정적 양육요인

	기질_사회성		기질_활동성		기질_정서성	
	B	t	B	t	B	t
(상수)	23.426	19.155***	14.679	21.297***	8.285	11.932***
자이존증감	.134	3.938***	.067	3.473**	.154	7.991***
사회적양육	.141	4.631***	.055	3.199**	.075	4.360***
자녀가치_정서적	.205	2.703**	.076	1.781	.025	.568
F	30.907***		17.748***		50.540***	
R2	.051		.030		.080	
VIF	1.134-1.292		1.134-1.292		1.134-1.292	
Durbin-Watson	1.970		2.011		1.911	

*** p<.001

<표 9> 영아의 기질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양육요인

	기질_사회성		기질_활동성		기질_정서성	
	B	t	B	t	B	t
(상수)	37.865	63.135***	20.434	60.929***	20.717	63.447***
자기효능감	-.033	-.660	-.082	-2.973**	-.151	-5.631***
양육스트레스	-.088	-4.318***	-.005	-.466	-.116	-10.389***
F	13.592***		6.468**		120.881***	
R2	.015		.007		.122	
VIF	1.255-1.255		1.255-1.255		1.255-1.255	
Durbin-Watson	1.976		2.000		1.944	

*** p<.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이 선천적이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여러 학자들(송명자, 1995; 황선희, 1994; Albert, 1961; Shaffer, 2002; Thomas & Chess, 1997; Strelau, 1989)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었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를 제외한 모든 양육요인은 영아의 기질 각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는 영아의 기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기대도 활동성 기질과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완전 기각보다는 부분채택이 가능

하다. 따라서 모든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요인들은 영아의 기질과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의 발달에 있어 주 양육자의 양육요인이 주요 환경요인이라는 Darling과 Steinberg(199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영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요인에 따라 영아의 기질이 변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도구적 가치기대는 연구대상자를 세대별 즉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현 자녀세대의 영아로 그리고 질적연구방법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요인 중 긍정적인 양육요인들은 영아의 기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요인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Gagnon 등(2014)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집단 간 차이 검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은 이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집단 간 차이, 상관관계, 회귀분석 모두 전체적인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다만 회귀분석에서 부정적 양육요인은 설명력 문제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양육요인 중 긍정적 요인이 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양육,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는 영아의 기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영아 및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질을 변하지 않는 요인으로 고정하여 연구하는 것보다는 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놓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리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하는 것이 영아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개입방법을 만드는데 보다 창조적일 수 있다.

둘째, 영아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요인 중 긍정적인 양육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아의 사회성은 그들이 영아기를 거쳐 청소년으로 자라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영아의 사회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때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정적 양육요인보다는 긍정적 양육요인이 보다 더 영향요인으로 적합한 것을 볼 때 긍정적인 양육요인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긍정심리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결과에 의하여 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삶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Fredrickson, 2001; Schwartz et al., 2002; Seligman & Pawelski, 2003).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많은 자신을 사랑하고(Hoggard, 2005), 더 잘 배우고(Seligman, 2004; Csikszentmihalyi, 1997), 더 많은 친한 관계들을 맺으며(Diener & Seligman, 2002; Fredrickson, 2001), 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Danner, Snowdon, & Friesen, 2001; Diener, 1984)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영아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을 줄이려고 관심을 갖기 보다는 긍정적인 요소인 자아존중감을 더 높이고, 사회적 양육을 더 하려고 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기대를 더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을 변하는 것으로 보고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앞으로 후속연구에 의하여 더욱 탄탄한 이론형성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렸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인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이것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선부르게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지속되는 연구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권용은 (2003).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어머니, 할머니세대 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기보경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선숙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소영, 권미경 (2005). 미숙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2), 123-136.
- 도현심, 김민정, 최미경, 김상원, 조수정 (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7). 걸음마기 아동 기질척도의 타당도 연구. **아동학회지**, 28(5), 55-72.
- 박연경, 황혜정 (2009). 어머니의 리더십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3(2), 277-298.
- 박인혜, 김진선, 조인숙, 강서영 (2007). 영아 어머니의 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2), 211-223.
- 박현정, 이경남 (200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47-55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손화희 (198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시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경남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특성이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엄지원 (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 :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아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유안진, 김연진 (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 이정희, 김은기, 이미란, 조성연, 이정림, 유영미, 이재선, 신혜원, 나종혜, 김수연, 정지나 (2009). **영유아발달**. 서울: 학지사.
- 이은주 (2004).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모의 학교교육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자녀양육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은희 (2000). **유아의 성, 출생순위, 또래지위와 기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 이지원 (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이형민(2005).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선녀 (2015).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황선희 (1994). **유아의 연령, 성 및 기질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훈련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허은주 (1988).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dler, A. (1970).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Albe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tes, J. E. (1989). Applications of temperament concepts. In G. A. Kohnstamm, M. K. Rothbart, & J. E. Bates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21-355)*. New York: Wiley.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illing, A. G., & Moos, R. H. (1983). Comparisons of children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parents: A Social environ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11*(4), 463-486.
- Black, B., & Logan, A. (1995). Link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in mother-child, father-child, and child-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66*(1), 255-271.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 Buss, A. H. & Plomin, R. (1986).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rey, W. B., & McDevitt, A. C. (1978).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3-7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1(3), 245-253.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5), 1628-1637.
- Csikszentmihalyi, M. (1997). *Living Well: The Psychology of Everyday Lif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 Danner, D., Snowdon, D., & Friesen, W.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04-813.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Seligman, M.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Emmanuelle, V. (2009). Inter-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91-99.
- Fredrickson, B.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Gagnon, S. G., Huelsman, T. J., Reichard, A. E., Kidder-Ashley, P., Griggs, M. S., Struby, J., & Bollinger, J. (2014). Help me play! Parental behaviors, child temperament, and preschool peer pla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5), 872-884.
- Hockenberry, M., Hooke, M. C., Gregurich, M., McCarthy, K., Sambuco, G., & Krull K. (2010). *Symptom clust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ceiving cisplatin, doxorubicin, or ifosfamide*. *Oncology Nursing Forum*. 37:E16-E27.
- Hoelter, J., & Harper, L. (1995). *Developing home-school partnership: Form concepts to practices*. New York: Teachers College.
- Hoggard, L. (2005). How to be happy. 이경아 역 (2006) (영국 BBC다큐멘터리 행복: 행복 전문가 6인이 밝히는 행복의 심리학). 서울: 예담.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et

-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erner, J. V., & Galambos, M.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reat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4), 1065-1085.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2004).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 Pawelski, J. O. (2003). Positive psychology: FAQs. *Psychological Inquiry*, 14(2), 159-163.
- Schwartz, B., Ward, A., Monterosso, J., Lyubomirsky, S., White, K., & Lehman, D. (2002). Maximizing versus satisficing: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78-1197.
- Shaffer, D. R. (2002).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relau, J. (1989). The regulative theory of temperament as a result of east-west influenc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35-48). New York: Wiley.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